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2019.06.24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1W	1M	3M	6M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KOSPI	1.4	3.9	-2.8	3.4	12.6	12.6	0.9	0.9	2.3	2.3	<p>(%)</p> <p>SK텔레콤 KT LG유플러스</p> <p>SKT 40.6% (Flat WoW, -0.2%p MoM) KT 49.0% (Flat WoW, Flat MoM) LGU+ 39.8% (+0.3%p WoW, +1.0%p MoM) LG유플러스 외국인 지분율 상승 지속</p>
통신업종	0.6	3.4	1.5	-7.9	12.9	12.9	0.8	0.8	3.7	3.7	
SK텔레콤	1.2	3.6	4.0	-5.1	14.7	10.7	0.9	0.8	4.0	4.0	
KT	-0.2	3.5	0.9	-7.8	9.9	8.8	0.5	0.5	3.9	4.1	
LG유플러스	-0.3	-2.0	-2.7	-15.1	12.2	11.0	0.9	0.8	2.8	2.9	
AT&T	0.3	0.5	4.4	14.6	9.1	8.9	1.3	1.3	6.3	6.4	
Verizon	-0.9	-2.5	-3.3	5.2	12.1	11.9	3.9	3.3	4.2	4.3	
T-Mobile	1.1	-0.9	5.3	22.2	19.1	16.0	2.3	2.1	0.0	2.4	
Sprint	-2.0	3.0	9.9	18.7	94.1	N/A	1.0	1.1	0.0	0.0	
NTT Docomo	-0.4	-2.0	0.6	1.6	12.5	14.0	1.5	1.5	4.4	4.8	
KDDI	2.1	1.9	12.7	7.5	10.9	10.8	1.6	1.5	3.6	4.0	
Softbank	2.4	-3.8	-9.1	34.5	8.9	8.7	1.7	1.3	0.4	0.8	
China Mobile	4.0	-2.1	-13.3	-5.8	10.8	10.5	1.1	1.1	4.8	4.7	
China Unicom	1.2	1.2	-16.3	2.0	16.7	12.3	0.7	0.7	2.3	3.2	
China Telecom	1.5	0.5	-9.2	-0.8	12.6	11.8	0.8	0.7	3.3	3.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6월 셋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0.8%p 수익률 기록하며 Underperform
미국 금리 인하 기대로 증시가 반등하는 가운데 통신주는 SK텔레콤만 소폭 상승
SK텔레콤과 KT가 5G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축소하면서 마케팅 경쟁이 다소 완화
국내 기관은 SK텔레콤, KT 순매수, LG유플러스 순매도, 외국인인 SK텔레콤 순매도, LG유플러스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28일, 29일 양일 간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화웨이 제재 관련 합의 도출 여부에 관심 집중
합의 결과에 따라 그 동안 화웨이 이슈가 악재로 작용했던 LG유플러스와 RFHIC 주가 반등 가능
통신 3사는 실적 우려보다 3Q19 무선ARPU 반등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6	17	18	19 5G+ 전략위원회 제1차회의 개최	20	21	22
23	24	25	26	27	28 G20 정상회의	29 G20 정상회의

3 주간 뉴스

▶ SKT 이어 KT도 5G폰 지원금 인하...출혈 경쟁 숨 고르기 (연합뉴스)

- SK텔레콤은 갤럭시S10 5G와 V50 쌍규에 대한 지원금을 각각 최대 51.4만원으로 하향 조정
- KT 역시 V50 쌍규 지원금을 최고 55만원으로 하향 조정. 갤럭시S10 5G 지원금은 변동 없음
- LGU+는 변동 없는 상황. 갤럭시노트 S10 출시를 앞두고 이통3사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
- ⇒ 초기 가입자 유치 경쟁은 다소 완화. 다만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5G 가입자 성장은 지속될 전망
- ⇒ 갤럭시노트10은 5G 모델로만 출시. 이는 5G 가입자와 마케팅 비용 모두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

▶ 5G산업 초고속 추진... 정부 "2026년까지 180조 생산 유발" (디지털타임스)

- 정부는 '5G+ 전략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2026년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 목표를 제시
-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국립박물관 4개소 체험관 구축 등을 추진해 콘텐츠 시장 조기 활성화
- 자율주행차를 기술검증 및 시범운영, 3D 맵 조기 구축, 5G 드론 사업, 주파수 추가 확보도 계획
- ⇒ SKT가 연내 5G 가입자 100만명 목표를 재확인하는 등 이통3사도 5G 사업에 대한 계획 발표
- ⇒ 정부 지원 활성화로 5G의 장기적인 수익원인 B2B 사업으로의 진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

▶ 中 통신사 5G 장비 구매... "화웨이에 절반 배정" (ZDNet Korea)

- 차이나모바일은 하반기 5G 망 장비 입찰 결과를 발표. 화웨이, ZTE, 에릭슨, 노키아를 구매 계획
- MME/SGSN, SAE-GW/GGSN 1,137개 중 화웨이 51.7%, 에릭슨 33.8%, 노키아 10.2% 배정
- 차이나모바일은 9월까지 40개 도시에서 5G 서비스를 개시. 올해 3~5만개의 5G 기지국 설립
- ⇒ 전체 비중은 화웨이가 선두지만 에릭슨과 노키아가 절반에 육박하면서 ZTE는 매우 소량 배정
- ⇒ 중국 정부의 개방적 태도를 강조함과 동시에, 화웨이를 지원하려는 조치인 것으로 해석

▶ 2021년 주파수 재할당 가격 5G대비 3배 ↑?...이통사 '울상' (아이뉴스24)

-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개정안을 공개, 의견 수렴 예정. 이통사는 대가산정 기준 재조정을 희망 중
- 5G를 제외하고 약 80% 수준인 330MHz 대역폭이 이용기간 만료에 따라 2021년 재할당 대상
- 법규는 유사한 주파수가 경매된 적이 있다면, 재할당 대가가 경매 가격에 연계될 수 있다고 명시
- ⇒ 일부에서는 재할당이 한번에 물리면서 8~10조원 수준의 주파수 대가가 책정될 수 있다는 의견
- ⇒ 현재 재할당 관련된 개정 작업은 하고 있지 않으나, 이통사는 실제 매출을 반영해달라고 요구

▶ 화웨이 장비 배제...우정 차세대 기반망 주사업자 KT 선정 (전자신문)

- KT(1사업-주회선)와 LG유플러스(2사업-부회선)가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기반망 사업자로 낙점
- 화웨이 장비는 모든 사업자가 배제. 코워버와 우리넷 등 국산업체 장비 및 일부 외산 장비를 제안
- 1사업(933억원)에는 KT가 SKB보다 3점 이상 상위, 2사업(356억원)에서는 LGU+가 높은 점수
- ⇒ 우정은 다음 달 초 우선협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
- ⇒ KT와 LGU+가 선정된 것은 기존과 비슷. 다만 화웨이 배제된 것은 국내 장비사에 긍정적 결과

▶ CJ헬로·티브로드·폭수수, 미디어 빅뱅 갈길 바쁘는데... (news1)

- 청와대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 2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
- 9월 서비스 출시 계획인 SKT의 신규 OTT와 LGU+-CJ헬로 인수 승인이 늦어질 우려가 발생
- 일부는 통신-미디어 결합에 우호적인 김 위원장의 청와대 진출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 공정위원장 교체는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 그럼에도 공정위는 심사 검토 중단은 없다는 입장
- ⇒ 심사 기간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통신-미디어 산업 간 결합은 확고한 흐름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한국	SK텔레콤	262,000	18.2	15.2	15.8	1.1	1.2	1.2	1.7	4.2	4.4	6.0	5.7	6.6	8.3
	KT	28,200	6.4	20.0	20.5	1.1	1.2	0.6	0.7	4.1	4.3	2.6	2.5	5.5	6.0
	LG유플러스	14,650	5.5	10.4	10.8	0.6	0.7	0.4	0.5	2.3	2.4	3.5	3.3	7.6	8.1
미국	AT&T	32.5	236.8	183.2	183.6	37.4	38.4	25.3	26.0	60.3	60.5	7.3	7.2	11.7	11.8
	Verizon	57.8	238.9	131.8	133.3	31.1	31.9	19.7	20.2	48.2	49.2	7.8	7.6	33.9	29.5
	T-Mobile	75.7	64.7	45.4	49.2	5.9	6.6	3.4	3.8	12.8	13.6	8.2	7.7	11.5	12.0
	Sprint	6.9	28.1	33.4	33.1	2.7	1.7	0.3	-0.8	12.6	11.8	4.8	5.2	1.2	-0.3
일본	NTT Docomo	2,481	77.0	43.2	42.5	9.0	7.8	6.2	5.4	13.7	13.0	5.3	5.8	12.6	11.1
	KDDI	2,793	61.2	46.5	47.6	9.2	9.4	5.6	5.7	14.4	15.2	5.1	4.9	15.5	14.4
	Softbank	10,250	99.6	86.2	89.8	16.5	12.5	10.8	11.3	27.6	25.9	7.7	8.3	14.6	14.9
중국	China Mobile	71.0	186.1	108.4	112.2	17.9	18.4	17.1	17.6	41.9	43.5	3.0	2.8	10.9	10.7
	China Unicom	8.6	33.5	43.9	46.7	2.2	3.0	2.0	2.8	13.6	14.5	2.5	2.4	4.3	5.7
	China Telecom	3.9	40.8	56.9	59.2	4.6	4.9	3.2	3.4	16.0	16.5	3.2	3.1	6.3	6.4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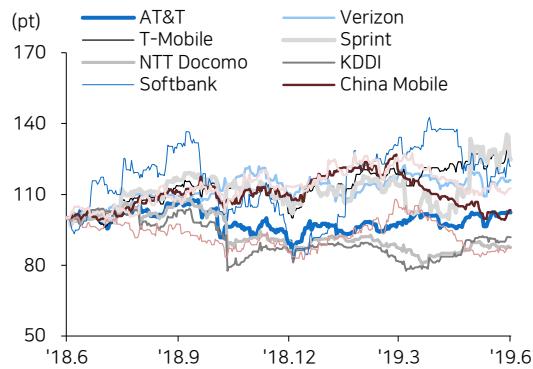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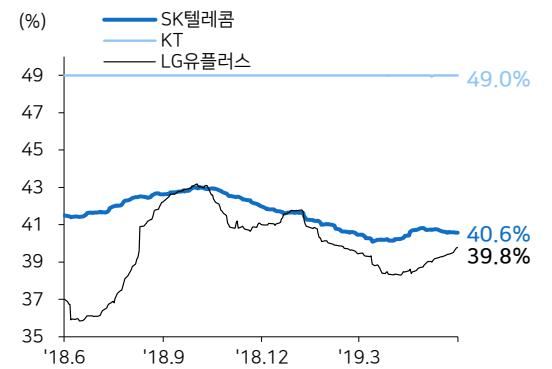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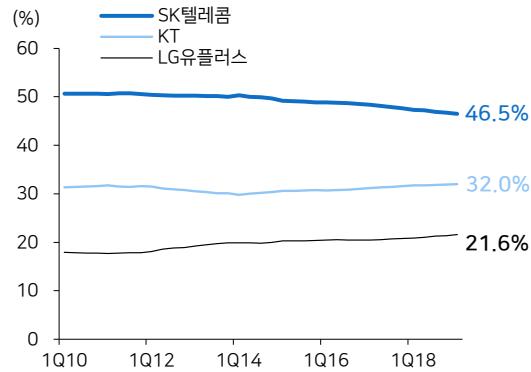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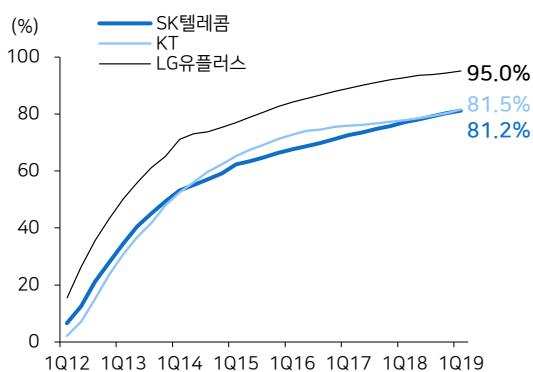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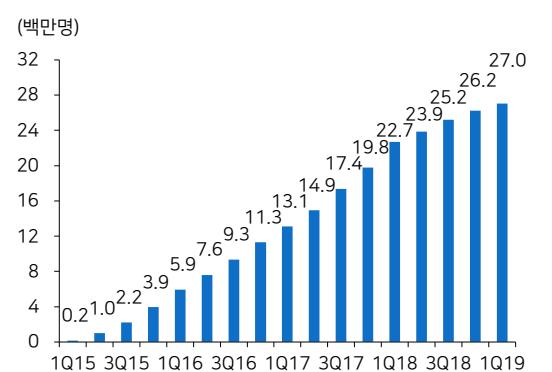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보급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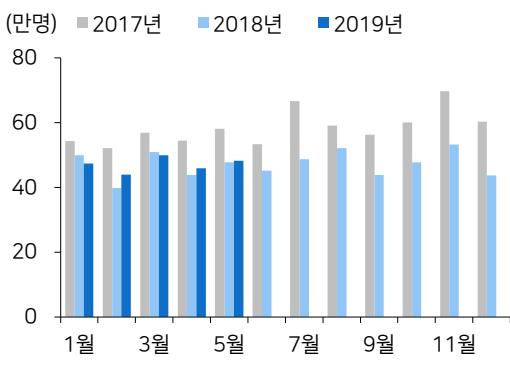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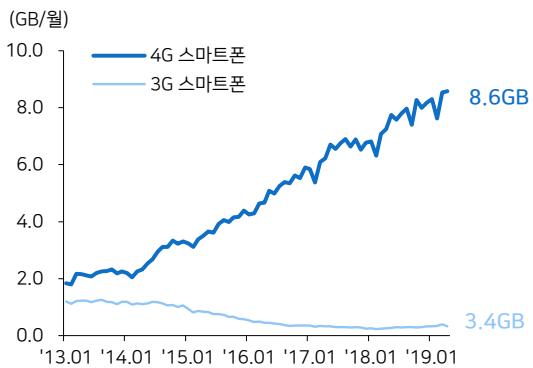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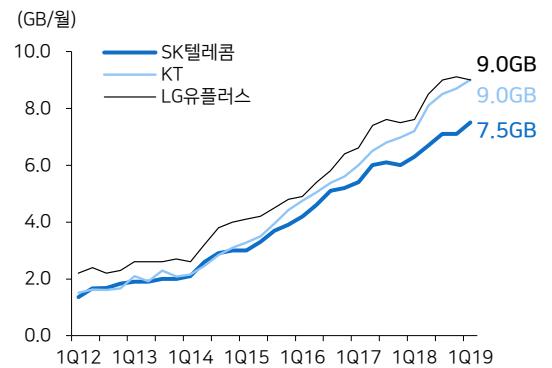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06월 2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중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06월 2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06월 2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문경원)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